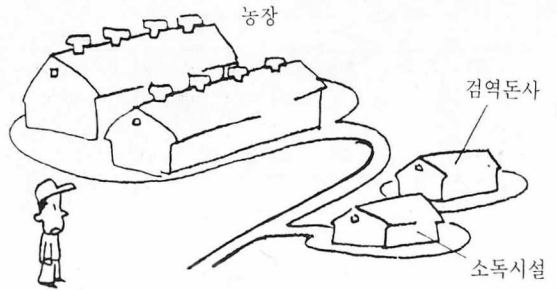


양돈생산의 장래방향과 돈사

권 형 필
(본회 양산지부장)

돈육 수요의 정체와 과잉생산 그리고 수입압력 등에 의해 돼지값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양돈생산자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장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낙관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래, 그중에서도 식량의 안정확보(안보면에서)나 환경보전의 면으로부터 농업의 발전은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양돈생산도 또한 장래를 향하여 존속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 농장과 떨어진 장소에 검역돈사와 소독시설을 갖도록 한다.

1. 방역과 위생관리

현재의 많은 두수와 고밀도사육은 필연적으로 질병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식육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져 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양돈장의 방역관리와 돈사내의 위생관리가 한층 더 중요시 된다.

질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① 도입하는 자재나, 자돈 그리고 기자재의 검역과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도록 한다.

② 돈사내의 환경조절이나 위생관리면에 배려가 필요하므로 급후에는 검역돈사, 자재소독시설, 출하시설 등의 설치로 양돈장내의 출입규제를 강화하는 일이 필수사항으로 되어야 한다. 또 돈사에 대하여는 일방통행관리방식이나 올인-올아웃(全入·全出)등의 실시에 의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2. 관리의 성력화와 치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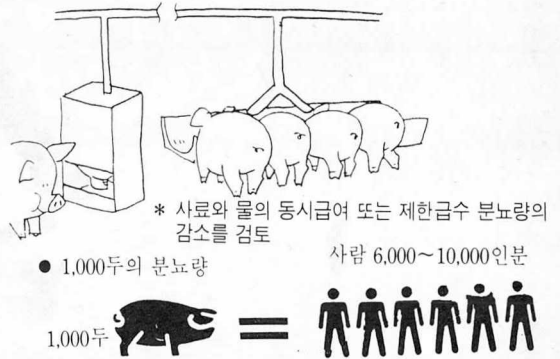
규모확대를 지향하는 양돈경영에서는 관리의 성력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동시에 치밀한 관리에 의해 사양성적의 향상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자료에 근거한 사양관리나 경영의 개선을 실현해 갈 필요가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사료급여방식 등도 개발되어 있어, 이같은 새로운 기술의 채택에도 적극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양돈장에 있어서도 농장전체를 관리하는 조정 관리실로서의 관리실의 설치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본다.

3. 생산환경의 정비

돼지의 생산성은 환경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돈사의 환경조



* 각종 자료에 근거한 치밀한 관리가 중요하다.



절에 관해서는 「최적환경이 최대의 생산을 이룬다」고 하는 기본이념하에 주로 온열환경조건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위생환경(공기성상)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더해 선진축산국에서 근년에는 「가축의 복지」, 즉 가축의 생태에 합치된 관리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① 온도 ② 공기의 청정도 ③ 가축의 생태라고 하는 세가지를 고려하고, 이에 이들 조절이 자동적이고도 정확하게 실시되어지는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사양방식의 검토와 함께 돈사의 효과적인 환기가 한층 더 중요시 되어간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4. 분뇨처리와 에너지

분뇨처리는 현재 양돈업의 최대 문제중의 하나이며, 유효한 대책이 없다는 현상이기도 하다. 한편 환경보전에 대한 규제는 금후 더욱 엄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도 규제의 강화보완에 환

경관리 당국은 골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양돈 생산자는 보다 합리적인 처리방법의 확립이 급선무로 되어 있다. 분뇨처리문제를 곤란하게 하는 것 중에 한가지 원인은 분뇨 자체의 양이다. 따라서 돈사로부터 반출되는 분뇨의 양을 가능한 적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료와 물의 동시급여나 제한급수방식 등의 검토·실시가 중요하고, 시설이나 설비도 이에 따라 재검토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방식이던 돼지의 분뇨는 처리로부터 이용으로 진전되어 가리라고 본다.

가축의 분뇨는 유기질비료로서의 이용이 제일 자연의 생태계에 합치된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나, 다량으로 산출되어지는 배설물을 처리할 수가 없다. 이외의 이용방법으로서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분뇨의 에너지화로서 메탄발효나 직접 연소방식은 이미 일부에서 실용화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장치(裝置)산업화 하여 있는 우리나라의 양돈은 에너지 다소비형산업이기도 하므로 에너지의 성력화나 자원의 재활용이 중요하다. 분뇨에 유래된 에너지에 더하여 태양에너지, 지원, 풍력 등을 조합한 복합적 에너지 이용을 검토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